

새로운 세계의 탐색, 문학과 여행

- 朴齊家の 燕行 漢詩를 중심으로 -

李勝洙\*

目 次

1. 여행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 驚異感
2. 한문학사의 여행 / 문학 관련 논의 전통
3. 여행으로서의 燕行, 그리고 漢詩
4. 맺음말 - 여행의 상징성을 거듭 생각하며

## 1. 여행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 驚異感

1888년 6월 고흐(1853~1890)는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1-1] 지도에서 도시나 마을을 가리키는 검은 점을 보면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그럴 때 묻곤 하지. 프랑스 지도 위에 표시된 검은 점에게 가듯 왜 창공에서 반짝이는 저 별에게 갈 수 없는 것일까?!)

좁은 화폭에 깊고 넓은 세계를 열어 보이려 했던 천재 예술가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실제 고흐는 38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극심한

1) 빈센트 반 고흐 지음, 신성림 옮김,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예담, 2001, 177쪽.

가난 속에서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여 별반 여행다운 여행은 해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행을 꿈꾸었다. 그의 영혼은 당대 과학 기술의 수준은 아랑곳 않고 밤하늘의 별을 동경했던 것이다. 고흐가 꿈꾼 것은 현실과 지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고, 이는 아마 그의 창작 정신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21년이 지난 1919년 서머셋 모옴(1874~1965)은 『달과 6펜스』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1-2] 나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곳이 아닌 데서 태어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어느 다른 환경 속에 내던져지는 경우가 있어도,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의 고향을 향한 향수를 느끼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의 출생지에서는 오히려 이방인이며, 어릴 때부터 낯익은 녹음 진 골목길도 뛰어놀던 복잡한 길거리도 결국은 지나가는 길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그 아버지 사이에서도 일생을 타인의 마음으로 보내고, 그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유일한 풍경 가운데서도 서먹서먹한 채 보내버리고 마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격리의 정으로 해서 인간이란,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영원한 무엇인가를 찾아 멀리 아득한 나그네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아마 인간의 마음 깊숙이 뿌리박힌 隔世遺傳<sup>2)</sup>이랄까 이런 것이 그 나그네를 재촉하여 유구한 역사의 어스레한 여명 속에 조상이 버리고 떠나갔던 땅으로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sup>2)</sup>

안정된 삶을 누리던 40세의 증권 중개인 차알스 스트릭랜드는 어느 날 문득 가족과 직장을 모두 뒤로 하고 프랑스로 떠난다. 이유는 단 하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다.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의 영혼에는 도덕적 선악의 관념이나 성패에 대한 계산 같은 것이 남아 있지 않았다. 혹심한 가난 속에서 그림을 그리던 스트릭랜드는 또 어느 날 갑자기 남태평양

---

2) 서머셋 모옴 저, 장왕록 역, 『달과 6펜스』, 삼성출판사, 1977, 174~175쪽.

양 속의 타이티 섬으로 가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다가 죽는다. 인용문은 예측할 수 없는 그의 행적에 대한 논평이다. 이 논지대로라면 낯선 곳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 여행은 오래 전에 떠난 고향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 일상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만나러 가는 행보이다. 간혹 일상의 세계가 이질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며, 반대로 여행지에서 친숙함과 일체감을 얻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아와 고향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왕왕 경제적인 손익과 도덕적인 선악의 판단을 초월한다.

낯선 곳에 대한 동경,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이려는 지향, 그리고 출발(탈출) → 모험(탐색) → 복귀(정화, 갱신)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여행과 예술은 본질상 상통한다. 여행과 예술은 일상의 반복적 타성에 대한 통찰, 안전하지만 지루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감행, 충격과 경이의 체험, 삶의 정화와 세계 갱신의 과정을 공유한다. 여행과 예술은 공히 삶을 자유롭게 하며 세계를 거듭나게 한다. 여기에는 既知와 未知, 낮익음과 낯설, 출발과 귀환, 은폐와 開示, 허물기와 새로 세움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의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하이데거는 예술작품의 존재 본질을 [스스로를 여는 開示性과 자신을 감추는 은폐성의 대립과 투쟁, 즉 진리를 드러내는 생성과 운동]으로 보았는데,<sup>3)</sup> 이 명제를 여행에 대입해도 별 무리가 없다. 스트리랜드의 삶은 예술 창작과 여행의 상관성(또는 상동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다.

여행의 의미는 공간 이동이라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경이감이라는 내적 요소에 의해 충족된다. 경이감 속에서 삶은 자유로워지고 세계는 새로 위치며, 세계와의 일체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달리 미의식(또는 미적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 미의식이야말로 예술작품이 잉태되는 지

3) 하이데거의 예술관에 대해서는, 오병남 외 옮김, 『예술작품의 근원에 대하여』, 경문사, 1990, 106~127쪽 참조

점이며 존립하는 근거이다. 예술과 여행은 빈번하게 한 지점에서 만나는 사이인 것이다. 딱딱한 개념 규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얼마간 느슨하게 말한다면, 모든 예술작품은 여행 중에, 아니면 여행의 기억으로, 아니면 여행에 대한 동경으로, 그것도 아니면 여행의 정서 속에서 지어진다. 여행은 예술의 고향이거나 이웃이다.

## 2. 한문학사의 여행 / 문학 관련 논의 전통

사마천(기원전 145~85?)은 『史記』 130편을 자신의 서문으로 매듭짓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2-1] 遷은 龍門에서 나고, 황하의 북쪽 용문산 남쪽 기슭에서 농경과 목축에 종사하였다. 열세 살에 古文을 암송하였다. 스무 살에 남쪽으로 江水와 澮水 사이에서 놀았다. 會溪山에 올라 禹穴을 탐방하고, 九疑山에 오르며 沅水와 湘水에 배를 띄웠다. 북쪽으로 汶水와 泗水를 건너 齊나라와 魯나라의 옛 서울에서 학업을 닦고 공자의 유품을 목도했다. 鄒縣의 嶧山에서 鄉射禮를 익히고, 鄆·薛·彭城에서 괴로움을 겪었으며, 梁나라와 楚나라를 거쳐서 돌아왔다. 이에 있어 遷은 벼슬하여 郎中이 되고, 칙명을 받들어서 서쪽으로 巴·蜀 이남의 땅을 정벌하고 남쪽으로 邛·笮·昆明을 평정하고 돌아와 復命했다.<sup>4)</sup>

사마천은 불과 스무 살에 천하를 돌며 역사의 현장을 탐방했는데, 후대 사람들은 『史記』가 불후의 명문이 된 이유를 여기에서 찾곤 했다. 때로 열세 살에 고문을 암송했다는 말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천하 유람에 초점을 맞추었다. “천 리 길을 다니는 것이 만 권의 책

4) 남만성 옮김, 『사기열전(하)』, 을유문화사, 1983, 제 70 「太史公自序」, 832~833쪽.

을 읽는 것보다 낫다[行千里路勝讀萬卷書]”거나, “만 권의 책을 읽는 건 만 리를 다님만 못하다[讀萬卷書不如行萬里路]” 등의 말들도 사마천이란 이름과 함께 회자되었다. 뒷사람들은 문학과 여행의 상관성을 간파했던 것이다. 사마천의 여행 체험, 이를 통해 얻은 입체적 현장 감각은 『사기』가 문학적으로 성공하는 데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사마천의 말은 동아시아 문학사에 있어 이후 여행과 문학의 긴밀한 상관성에 대한 중대 지표가 되었고, 사람들은 흔히 사마천의 예를 들어 문학에서 여행의 중요성을 말하곤 했다.

[2-2] 옛날 사마천은 燕·趙·鄒·魯로부터 龍門에 이르렀으니 그 다닌 곳이 중화의 반이었다오. 그리고 문장을 지어 만고에 우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燕京에는 1년에도 서너 차례씩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거기까지의 거리 또한 천하의 반이라 할 수 있소. 하지만 아직 그만한 문장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구려. 나는 남몰래 이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죽하는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에서 일어나 호서를 관통하여 서울 경기 일대를 둘러 황해도 지역을 통과하여 평안도 땅에 이르렀으니, 우리나라에서 2천 리를 다녔고, 여기에 중원 땅 3천 리를 넘으면, 이 어찌 사마천의 짝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뒷날 그대가 돌아오면 나는 먼저 주머니를 열어 사마천의 문장을 얻어 오늘 등불 아래에서 주고받은 말을 징험할 것입니다.<sup>5)</sup>

[2-3] 옛날에 문장을 하던 사람은 반드시 관람을 넉넉하게 하여 흥차를 넓혔네. 용문의 태사공은 약관에 江淮에 떠서 沅湘을 건너 燕·趙·齊·魯의 유허를 돌아보고 돌아온 까닭에 그의 문장은 질탕하여 기이한 기상이 있어, 후세의 문장 짓는 이가 미칠 바 아니니 강산의 도움[江山之助]이 깊다고 할 만하네. 무릇 季逵의 고원한 뜻으로 마땅한 곳을 얻었으니 여기에 사마천의 노닐을 더한다면 문장을 함에 대방의 떨

5) 유몽인, 『어우집』 권5, 「送金書狀鑑赴京歌序」.

침으로 반드시 9만 리를 날아가서 그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네. 성취할 바를 어찌 헤아릴 수 있으리오. 나는 문장에 뜻이 있으나 고요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니. 그대가 가는 것을 인하여 저속이 마음에 느낌이 있는 까닭에 이에 서하여 보내네. 계달은 힘쓸진저.<sup>6)</sup>

[2-1]은 유몽인(1559~1623)이 1617년 燕行을 떠나는 金鑑에게 준 서문의 일부이다. 유몽인 또한 사마천 문장의 우수성의 원인을 그의 여행 체험에서 찾았다. 그렇게 여행의 규모만을 따지자면 1년에 서너 차례 여행을 하는 조선의 지식인들 또한 사마천에 밀릴 것이 없다. 하지만 조선에는 『사기』와 같은 문장이 없다. 자존심이 무척 강했던 유몽인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등하게 사마천을 인식했다. 지금 여행을 떠나는 金鑑의 경우, 조선 땅 2천 리에 중원 땅 3천 리를 더하면, 여행의 규모만으로는 외려 사마천을 웃돌게 되니, 마땅히 사마천의 문장을 지을 수 있다고 격려·고무하고 있는 것이다.

[2-2]는 金昌翁(1653~1722)이 종제 金昌直에게 준 서문의 일부이다. 그 또한 문장을 함에 있어 필수 선결 조건으로 여행을 제시했고, 그 본보기로 사마천을 들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이번 여행을 계기 삼아 훌륭한 문장을 이룰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행이 문학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논의는 오랜 세월 거듭되어 왔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앞 장의 논의에 준한다.

그런데 [2-3] 중에 ‘강산의 도움[江山之助]’이라는 구문이 눈길을 끈다. 좋은 문장이 빚어지기 위해서는 ‘강산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 또한 오랜 세월 여행/문학 관련 논의의 한 흐름을 형성해왔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사마천보다 600년쯤 뒤에 태어난 劉勰(465~522)이다. 그는 『문심조룡』의 「物色」 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

6) 김창흡, 『三淵集拾遺』 권23, 「送季達之岳州序」.

[2-4] 저 산림이나 물가는 실로 詩情의 보고다. 말을 간략하게 하면 모자라는 데가 있고, 자세하게 말하자면 번잡하게 된다. 그러나 屈平이 능히 詩經과 離騷에 보이는 정취를 체득한 것도 역시 자연의 도움[江山之助]이 아니겠는가.<sup>7)</sup>

여기서 物色이란 景物을 뜻한다. 江山之助에서 江山 또한 物色의 구체적 표현이다. 江山之助는 시 비평에 있어 오랜 전통인 情景論이나 物我論의 맥락 속에 놓여있을 뿐이니, 굳이 여행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江山之助’의 의미는 여행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江山에 일상 밖의 ‘새롭고 아름답고 거대한’ 등등의 의미가 부가되었기 때문이다. 江山之助가 사람들의 입에 널리 오르내리게 된 계기는 “張說(667~730)은 또 시에도 능하여 盛唐의 풍모를 갖추었는데, 岳州 태수를 지낸 뒤 시가 더욱 淒婉하여졌으니 사람들은 강산의 도움을 얻었다고 말한다.”<sup>8)</sup>고 한 『신당서』의 기록이다. 張說의 약주 태수 체험은 貶謫에 가까운 지방관 체험이었지만, 경위와는 상관없이 거기에는 여행의 속성이 짙게 배어있다.

허균(1569~1618)의 아래 말은 문학비평사에서 江山之助가 여행/문학 관련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징표이다.

[2-5] 근대의 館閣詩에서는 李山海가 으뜸이다. 그의 시가 초년부터 당을 본받았으며 늘그막에 平海에 귀양 가서 비로소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다. 高敬命의 시 또한 벼슬을 내놓고 한거하는 가운데 크게 진보된 것을 볼 수 있었으니, 이에 문장이란 부귀영화에 달린 것이 아니라 험난

7) 이민수 역, 『文心雕龍』, 을유문화사, 1984, 권10, 「物色」, 277쪽. “若乃山林臯壤, 實文思之輿府, 略語則闕, 詳說則繁. 然屈平所以能洞監風騷之情者, 抑亦江山之助乎!”

8) 新唐書, 「張說傳」. “張說又能詩, 具盛唐風貌. 官岳州後詩益淒婉, 人謂得江山之助.”

과 고초를 겪고 강산의 도움을 얻은 후에라야 묘경에 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두 공만 그러하랴. 고인이 모두 이러하니 柳州로 좌천됐던 柳子厚나 嶺外로 귀양 갔던 蘇東坡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sup>9)</sup>

허균이 예로 든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의 경우, 유배(좌천 포함) 체험 이후 시문이 급격하게 좋아졌다고 한다. 물론 유배가 곧 여행일 수는 없다. 유배는 자발적인 공간 이동이 아니며, 거기에는 정치적 좌절 및 심리적 절망감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대 이전 시기, 넓게 보아 유배는 여행의 하위 범주에 들어간다. 이 시기 趙緯韓(1567~1649)은 策問에서 시문과 江山之助의 상관성을 거론한 바 있다. 수동적으로 강산의 도움에만 기대서는 안 되니 어떻게 인재를 양성 발굴하고 문교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사마천·굴원·장열·두보·유종원·한유 등의 시문이 모두 이들의 여행 체험을 토대로 크게 진보했다는 당시 세간의 일반적인 인식이 드러난다.<sup>10)</sup>

문학사의 전통에서 여러 종류의 여행이 문학을 잉태하고, 낳고, 성숙시킨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춘향전』에서 이도령은 삼춘 시절을 맞이하여 景處를 찾으려 하다가, 탐탁치 않아하는 방자에게 “너 무식한 마리로다. 자고로 문장지사도 절승강산 귀경키난 風月作文 근본이라.”면서 사마천·소동파, 백거이에 세조대왕까지 예거함도 그러한 인식의 소산이다.<sup>11)</sup>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좋은 글을 지을 것을 당부하고, 반대로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여행을 권고함은 흔한 인사치레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9) 허균, 『성소부부고』. 제25권, 『惺叟詩話』(국역성소부부고 제 3책 220쪽).

10) 조위한, 玄谷集』 권 12, 策題. “司馬子長, 遍游名山而文章奇壯, 三閭大夫, 放逐湘潭而辭語悲楚, 張說嶺外之詩, 別有江山之助, 杜甫夔州之後, 尤見詩律之細, 子厚山水之記, 昌黎潮州之作, 皆出於歷覽幽絕之處而文章入妙云 …”

11)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2-6] 宋希甲은 늘 강도에 있으면서 물을 길고 땀나무를 해오는데 근심하기가 노복과도 같았다. 하루는 權石洲가 일렀다. “사람이 널리 천하를 보지 못하면 시 또한 갇히게 된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미 어쩔 수 없지만, 자네의 근골은 이 일을 해내기에 충분하네. 다만 압록강 북쪽은 경계가 삼엄하니, 알려지지 않은 길을 숨어 가다가 물을 만나면 헤엄쳐서 건넌 뒤에야 이를 수 있네. 자네는 꼭 漢語와 수영을 익혀놓게.”<sup>12)</sup>

[2-7]

시란 건 명산과 대천 속에 숨었거늘	詩在名山與大川
찾는 이 하나 없고 바람과 안개만이	無人搜挾只風煙
영산강은 멀리멀리 산호바다 닿아있고	溟湖迥接珊瑚海
월출산 높이 솟아 고니 하늘 어루누나	月嶽高摩翠鵠天
秦州와 蜀 땅 기행 두자미 기다렸고	秦蜀紀行須子美
파릉의 물색들은 이청련을 고대했지	巴陵物色待青蓮
예로부터 최와 백이 시어를 다듬던 곳	向來崔白推敲地
길가에 널린 구슬 얼마나 많을 건가 <sup>13)</sup>	何限驪珠棄道邊

[2-6]은 權驪(1569~1612)과 그의 제자 宋希甲의 일화이다. 권필은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천하 博覽의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천하 박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불법으로라도 국경을 넘어야 한다며 외국어 및 수영을 미리 익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시대를 詩名으로 풍미한 권필이지만, 그는 건문의 부족을 절감했던 것이다. 이에 송희갑은 매일 바다에서 수영을 익히다가 그만 몸이 상해 요절했다고 한다.<sup>14)</sup> 이 일화의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이 일화를 전한 宋時烈(1607~1689)의 시기 여행/문학 논의의 실상을 전해주는 데는 모자람이

12) 송시열, 『宋子大全』 권76, 「與南雲卿 戊辰正月二日」.

13) 김창흡, 『三淵集』 권10, 「送朴士賓遊湖南」.

14) 이 일화 및 관련 권필의 시론에 대해서는 정민, 『穆陵文壇과 石洲 權驪』(대학사, 1999), 「石洲의 詩觀과 詩精神」, 219~227쪽, 참조.

없다.

[2-7] 시는 김창흡이 1711년 호남 유람을 떠나는 朴泰寬에게 준 것으로, 첫 구부터 시는 명산대천에 있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니 시를 찾기 위해서는 명산대천으로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호남의 영산강과 월출산이 바로 시가 숨어있는 곳이다. 논거로는 두보와 이백을 들었다. 5구와 6구는 각각 두보가 759(48세)년 秦州(甘肅省)와 成都(四川省) 등지를 전전할 때 지은 시들이 그의 시문학의 정점을 이루고 있음과, 巴陵(岳陽)과 洞庭湖 일대의 물색들이 이백을 만나 비로소 아름답게 시로 드러났음을 말하고 있다. 명산과 대천에는 시들이 숨어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시인을 만날 때 그 명산대천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언표라 하겠다. 7구의 崔와 白은 영암과 장흥 출신의 시인 崔慶昌(1539~1583)과 白光勳(1537~1582)을 지칭한다. 두 예문은 17세기 무렵 조선의 문인들이 시문 창작에 있어 여행(유람)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3. 여행으로서의 燕行, 그리고 漢詩

#### 3-1. 한시사의 초기 흐름과 여행

이젠 범주를 좁혀 漢詩와 여행의 상관성을 논의할 차례이다. 한시는 크게 예술, 작가는 문학의 범주에 드는 양식이니, 여행과의 상관성은 앞장의 논의에서 별반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 범주, 즉 여행과 한시 관련의 기원과 전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검토해야 한다. 여행에 관해서는 도로의 건설과 교통의 발달, 지방관 제도의 발생과 변화, 이웃 나라와의 외교, 국제 갈등과 전쟁의 발발, 유배제도의 변천과 유배 생활, 상업과 무역의 발달, 자연미의 발견, 留學의 제도, 流民의 발생 등등. 여행의 범주와 하위 갈래를 잡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한시의 경우도 최소한 본격적인 자국문학사가 등장하기 이전 형성과 변천의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한시사의 상류를 거슬러 오르다보면 많은 작품들이 이러저러한 여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東臨碣石, 而觀滄海.”로 시작하는 曹操의 「步出夏門行」은 전쟁으로 인한 군사 이동 중에 본 광경을, “請君試問東流水, 別意與之誰短長.”로 마무리되는 이백의 「金陵酒肆留別」은 길 떠날 때의 別處 정경을, “轉軸撥弦三兩聲, 未成曲調先有情.”으로 대표되는 백거이의 「비파행」은 유배자의 비감한 심정을,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로 회자된 두보의 「登岳陽樓」는 流民의 눈에 든 洞庭湖의 광경을, 지금도 많이 불려지는 이백의 「夜思」 “床前明月光, 疑是地上霜. 舉頭望明月, 低頭思故鄉.”은 객지에서 고향 그리는 심회를, “可憐無定河邊骨, 猶是春閨夢裏人.”으로 유명한 陳陶의 「隴西行」은 옛 전장의 쓸쓸한 분위기를 읊은 것이다. 이처럼 여행과 묶어 논의할 수 있는 작품들은 수없이 많다. 한시사의 초기 흐름과 여행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가 필요하다.

한국 한시사로 범위를 좁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8세기 초 인도를 구법 여행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는 아래 시가 실려 있다.

[3-1]

달밤에 고향 길을 바라보자니	月夜瞻鄉路
뜬구름 바람결에 돌아가누나	浮雲颯颯歸
편지를 가는 편에 보내려 해도	緘書參去便
바람 급해 듣고도 오지 못하네	風急不聽迴
우리나라 하늘 끝 북쪽에 있고	我國天岸北
이 나라는 땅 서쪽 구석에 있어	他邦地角西
남녘에는 기러기도 날지 않으니	日南無有雁
뉘 날 위해 계림에 날아가려나	誰爲向林飛

목숨을 걸고 唐에서 다시 인도로 순례 행각을 계속했던 求法僧도 달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누지 못해, 구름을 불러 편지를 부치지 못하고 소식 전할 기러기 없음을 탄식했다. 이날 밤 혜초는 심각하게 고독감과 향수에 시달리며, 신라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새삼 발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행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는 명제는 어제 오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723년 신라를 떠나 3년 간 인도를 여행하고 唐에서 살다 죽은 혜초의 삶은 서머셋 모옴의 말[1-2]에 그대로 부합된다. 한편 우리는 또 이 짧은 시에서 구법승의 법리 이면에 감추어진 신라인을 만나고, 인간적 진실을 엿볼 수 있다. 완고한 관습·이성·도덕·형식의 규제를 풀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여행과 문학은 상통한다.

혜초 이후 한국 초기 한시사의 주류 중에서도 崔致遠(857~?), 李齊賢(1287~1367), 李穡(1328~1396), 鄭夢周(1337~1392) 등의 문학 세계가 오랜 遊學이나 빈번한 使行 등 여행 체험으로 형성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3-2. 燕行, 출발과 감회

여기서는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그 범주를 18세기 연행 관련 한시, 그 중에서도 朴齊家(1750~1854)를 비롯한 몇몇 인물의 작품으로 국한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이 고려되었다. 첫째, 18세기 초 淸나라 사정의 안정으로 조선 使館의 門禁이 해제되어 사신들의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둘째, 子弟軍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공식 외교 업무를 지지 않은 여행자들이 등장했다. 셋째, 이 여행자들은 적극적으로 여행의 견문과 소회를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뛰어난 여행기를 남긴 金昌業(1658~1721), 洪大容(1731~1783), 朴趾源(1737~1805)은 모두 자제군관의 신분이었다. 이밖에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도 사신의 수행원으로 운신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연행에 참여했고, 적

극적으로 이국의 문물을 체험했으며, 자유로운 여행자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창의적으로 기록을 남겼다. 이들의 여행은 오늘날의 그것에 가장 가깝다.<sup>15)</sup>

여행의 전 과정을 말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는 떠나기 전의 설렘과 출발할 때의 들뜸이다. 일상을 벗어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행은 삶을 해방시킨다. 특히 자신들의 포부와 식견을 펼치지 못해 더 큰 세계를 꿈꾸던 지식인들은 연행에 앞서 미리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1712년 60세의 몸으로 자제군관을 포기하고 55세의 아우 昌業에게 양보한 김창흡은 못내 안타까워하면서, 상상의 燕行 연작시를 지어주며 아쉬움을 달랬다.

[3-2]

그대 왜 앉았다가 지금은 일어나나	曩子何坐今何起
망량이 그림자에 그 까닭 따지노니	魍魎問影詰所以
벌레들 우는 듯한 시비를 하지 마라	啾啾唧唧問是非
장부는 신념 따라 행동을 정한다네	丈夫要自信行止
요동 벌 만리장성 아득한 하늘 아래	長城巨野天蒼蒼
작도다 조선 땅은 사마귀와 같으리라 <sup>16)</sup>	渺乎黠域如黑子

[3-3]

만국이 모여들어 어깨 수레 부딪치며	肩摩輶擊輶萬國
낙타와 코끼리는 산악처럼 솟았으리	崑駝巨象峙山岳
우리 인생 건문이 적으면 안 될지니	人生不可少所見
안목이 커져야만 가슴도 넓어지네	大目方令胸肚擴
압록강 동쪽 땅은 도 논하기 좁으니	鴨江以東講道窄

15) 여기서는 燕行의 배경이 되는 한중 관계라든가, 연행 제도의 형성 및 변천, 연행로 등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업적이 적지 않으니 굳이 소개하지 않는다.

16) 김창흡, 『삼연집』 권11, 「送大有隨伯氏赴燕」其4.

[3-2]는 그림자와 덧그림자[魍魎]의 대화를 우언으로 내세워 시상을 펼쳐고 있다. 그림자나, 여기서 생기는 덧그림자는 모두 독립 실체가 아니다. 빛에 의해 파생된 허상일 뿐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의지도, 판단 능력도, 주견도 없는 이들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사소한 행동거지를 가지고 그 이유를 따지며 논쟁한다. 그건 벌레들의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행동의 寓意는 마지막 구절에서 분명해진다. 사마귀만한 작은 나라에서, 체면과 관습과 전례나 따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지도 판단하지도 결정하지도 못하는 지식인들의 행태가 그것이다.

[3-3]은 道를 강설하는데 견문의 너비와 안목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다. 압록강 동쪽 조선 땅은 도를 강론하기에는 너무 좁다고 했는데, 이는 영토의 크기나 지리상의 위치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 세계로부터 단절된 채로, 좁은 견문에 갇혀 고식적인 지식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당시 조선 지식층의 폐쇄적 분위기를 지적한 것이다.

연행의 당위성과 열망을 담은 김창흡의 시는 50수에 걸쳐 도도하게 표현된다. 駐蹕山과 太子河를 주제로 한 시에서는 燕太子丹과 唐太宗의 옛 행적을 제시한 뒤, “그 산하를 직접 보면 느껴 얕이 깊으리니, 10년 史書 읽음보다 나음을 알 것이라.”고 했다.<sup>18)</sup> 또 醫巫閭山에 대해서는, 이 산과 관련된 고대의 문헌 및 근세 인물을 언급한 뒤, “천금으로 명마 산들 무엇이 아까우랴, 채찍질 한번이면 순식간에 다녀올 걸.”이라고 했다.<sup>19)</sup> 두 편의 시는 문학과 연관성을 넘어, 지식에 있어 현장 체험의 중요성을

17) 위와 같은 시, 其41.

18) 위와 같은 시, 其8. “文皇駐蹕有小山, 燕儲匿身亦衍水. 思逞英武終見挫, 等受危亡欲雪恥. 山河觸目愆感深, 可知勝讀十年史. 駐蹕山太子河.”

19) 위와 같은 시, 其18. “周禮職方述巫閭, 楚歌遠遊起左徒. 桃花洞裏萬丈瀑, 賀公隱處雲梯孤, 何惜千金買名驪, 一鞭往還在須臾. 醫巫閭山.”

강조한 것이다. 이는 관념의 허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실에서 앎을 확인하려는 시대정신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이러한 시대정신을 구현했던 인사들에게 있어 燕行은 관례적이고 상투적인 외교 사행이 아니라, 선진 문명을 체험하고 세계와 호흡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 여행의 기회였다. 그러니 그 여행에 임하는 마음이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홍대용은 1765년 11월 27일 압록강을 건너며 말 위에서 한 곡조 미친 노래[狂歌]를 지어 읊었다. 홍대용은 간밤 꿈속에서 요동 벌판을 날아 건너 山海關 문을 한 손으로 밀쳐 열고, 望海亭 위에 취해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礪石山을 발로 박차고 渤海를 통째로 들이마신 뒤에, 장검을 짚고 서서 진시황의 옛 일을 크게 웃었다고 했다. 이는 여행을 향한 그의 꿈이 얼마나 절박했고, 또 여행에 나서는 그의 지식과 포부가 얼마나 원대했는지를, 또 거꾸로 그가 포부와 식견이 조선사회에서 얼마나 짓눌렸는지를 잘 보여준다.

13년 뒤인 1678년 박제가는 사신의 수행원 자격으로 여행에 나섰다. 서얼의 비애감 속에서도 홍대용과의 교류를 통해 이미 청조 문명을 동경하던 청년 박제가의 첫 번째 여행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는 개성에 이르러 아래 시를 지었다.

[3-4]

하늘 가 구름 속의 황새는 번뜩이고	天際擊雲鶴鶴明
온 땅 가득 봄 그늘 강물은 소리 없네	春陰滿地水無聲
서생은 바람 맞아 홀연 웃음 짓는데	書生忽作臨風笑
한 필 말 만 리의 정 아득히 끝없어라 <sup>20)</sup>	一騎迢迢萬里情

한 시대에 용납되기 위해 원대한 포부와 식견을 접고 구기고 잘라내야

20) 박제가, 『초정전서』 권1, 「抵崧京」.

했던 박제가에 있어, 燕行은 교우와 함께 질식을 면케 해주는 삶의 출로였다. 3구에 언뜻 보이는 박제가의 가느다란 미소는 삶의 출로를 나서는 불우한 삶의 비의를 내포하고 있다. 唐 시인 劉禹錫은 한 시에서 “마시기 전 마음이 먼저 취하여, 바람결에 그리움 질어만 가네. 未飲心先醉, 臨風思倍多.”(「酬令狐相公杏園花下飲有懷見寄」)라고 읊었는데, 이는 박제가의 마음을 천 년 먼저 얻은 것이다. 박제가에게 있어 여행은 술도 마시기 전 먼저 취하는 그래서 절로 미소가 나오는, 다녀온 뒤에는 술 향기와 취기가 가시지 않는 여운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은 이런 것이 아닐까.

### 3-3. 발견과 자각, 역사·지리·풍속

오랜 세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되던 수많은 이야기들(신화와 민담)은 20세기 들어 정신분석학의 도움을 입으며 비로소 인간의 심리가 변용된 상징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민담학자 블라디미르 프로프(1895~1970)는 민담(요술담)은 본질적으로 입문 제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때 주인공이 여행에서 겪는 모험과 시련 등은 모두 삶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성숙 과정의 상징이 된다.<sup>21)</sup> 조셉 캠벨(1904~1987)은 영웅 신화를 대상으로 여행의 상징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밝혔다. 그는 영웅의 모험이 세계로부터의 분리, 힘의 원천에 대한 통찰(입문), 그리고 황홀한 귀향(회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서 회귀는 영웅의 승리를 의미한다.<sup>22)</sup> 승리의 내용과 규모는 이야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영웅들은 여행을 통해 소중한 것을 성취한다. 싯달타는 깨달음에 이르

21) 최애리 옮김,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3, 72~153쪽.

22) 이윤기 옮김, 『세계의 영웅 신화』(대원사, 1991)의 1부 「여행의 모험」, 52~248쪽.

고, 주몽은 나라를 얻으며, 유리는 아버지를 찾는다. 프로메테우스는 하늘의 불씨를 얻고, 모세는 신의 계시를 받으며, 바리데기는 불사약을 구한다. 거타지는 용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손오공 일행은 불경을 얻어 부처가 되는 길을 닦는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캠벨이 말한 세 단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프루프와 캠벨은 공히 이러한 여행 이야기를 인간의 심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의 상징으로 보았다. 모든 신화가 인간 심리가 천상에 투사된 결과인 것처럼, 여행은 인간이 시련을 겪고 모험을 하는 과정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는 삶의 상징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여행이 인간 정신의 많은 부분을 의미하는 상징이 된 것은, 여행에 이미 그러한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적절한 비유는 아마도 여행일 것이다. 소년이 숲에 들어가 가상의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한 뒤 청년이 되어 돌아오고, 영웅이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여 힘든 과제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들은 부단히 여행을 겪으며 삶의 성숙을 체험한다.<sup>23)</sup>

이렇게 신화 또는 민담이 보여주는 여행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여행의 의미를 파악하고, 여행을 다룬 문학 작품의 성과와 한계와 의의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의 지원과 보호 아래 진행되긴 했지만, 조선조 지식인들에게 있어 燕行은 결코 가벼운 여행만은 아니었다. 김창업·홍대용·박지원 등은 왕복 다섯 달에 달하는 여정보다도, 국제 교류에 폐쇄적이었고 未知의 세계 탐색에 소극적이었던 시대의 분위기, 즉 김창흡이 말한 바그림자와 덧그림자의 논란을 넘어서는 것이 더 어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비감한 심정으로 연행에 임했던 것이다.

23) 프루프와 캠벨의 견해 외에도 클라리사 P. 에스테스 지음, 손영미 옮김,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고려원, 1994)에서 바살리사의 이야기를 다룬 3장 「직관의 힘」도 여행을 통해 직관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3-5]

흄비가 캄캄하여 하늘 분간 못하는데	土雨冥冥不辨天
돌개바람 불어와서 말 자주 넘어지네	疾颺吹馬馬頻顛
영웅의 단련함은 본시 이와 같을지니	英雄鍛鍊元如許
풍상과 험로 끝에 보아 얻은 것이라오 <sup>24)</sup>	看取風霜險阻邊

박제가가 1778년 첫 번째 연행 도중 지은 것이다. 大黃旗堡는 瀋陽의 서북쪽 외곽에 있던, 淸初에 형성된 마을이다.<sup>25)</sup> 흄비 섞인 만 리 바람을 맞으며 박제가는 고급 영웅들이 겪은 시련으로 점철된 행로를 떠올렸다. 그 영웅들은 온갖 험난을 겪고 돌아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거나 최소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 구조와 의미는 신화와 동화에서의 영웅 여행담과 동일하다. 박제가는 그 숭한 영웅들의 행적에 자신의 여행을 동일시했다. 그에게 있어 연행은 조선 사회의 모순을 치유할 불사약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었고, 최소한 자신의 신념과 식견을 확인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제의였다.

박제가와 같은 여행자들은 연행에서 역사와 지리, 각종 풍속, 군사와 경제, 그리고 세계정세 등을 새로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조선의 현실을 엄밀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다. 조선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과 자신의 키를 재볼 자를 얻게 된 셈이다. 그중 두어 증거만 보기로 하자.

[3-6]

아득한 동쪽 땅에 태어난 몸이	藐茲生東國
땅 막혀 휘파람도 불지 못했네	地蹙不敢嘯
.....	.....
공자는 크나큰 성인이신데	尼父大聖人

24) 박제가, 『초정전서』 권1, 「大黃旗堡遇大風」.  
 25) 이승수 외,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2005, 400~430쪽.

동산 올라 노나라의 작음 알았지<sup>26)</sup> 登山知魯小

[3-7]

낙타가 누운 곳에 라마 승려 있으니	明駝臥處喇嘛僧
옥새가 서쪽 온 뒤 이교가 일어났네	玉璽西來異教興
절 안의 큰 소나무 잘라낸 듯 고르고	寺裡雲松平似剪
푸른 산 한 터럭 끝 청태종 능 보이네 <sup>27)</sup>	靑山一髮見昭陵

[3-8]

호피는 전대의 역 이름이요	虎皮前代驛
양각은 낯선 고장 등불일러라	羊角異鄉燈
주몽의 옛 강역에 속한 땅이라	地屬朱蒙舊
문물에서 발해 흔적 볼 수 있도다 <sup>28)</sup>	文猶渤海徵

[3-9]

땅의 쓰임 벽돌이 우선인데도	地用甃爲先
우리나라 사람들 피하지 않네	東人都不講
계다가 웃음거리 더하는 것은	還添一笑資
말 탈 때 고삐를 잡게 함일세 <sup>29)</sup>	騎馬使之控

[3-6]은 첫 번째 여행 중 遼陽에서 지은 작품이다. 遼陽은 우리 쪽에서 보면 요동 들판이 시작되는 곳의 도시이다. 조선의 여행자들이 조선과 산천 기맥이 같은 東八站을 지나 제일 먼저 탄성을 지른 곳이 바로 이 요동 들판이다. 일부의 지식인들에게 이 광대무변의 요동 들판은 물리적인 너비가 아니라, 구속이 없는 정신 크기의 표상으로서 다가왔다. 땅에 막혀

26) 박제가, 『초정전서』 권1의 14구 「遼陽州作」 처음과 마지막 짝.  
 27) 박제가, 『초정전서』 권3, 「瀋陽雜絕」 7수 중 4번째.  
 28) 박제가, 『초정전서』 권3의 5律 「連山關」 중 가운데 네 구.  
 29) 박제가, 『초정전서』 권4, 「燕京雜絕」 140수 중 其 123.

회파람도 감히 불지 못했다는 박제가의 말은, 이 공간을 한 바탕 목 놓아 울기에 좋은 곳이라고 한 박지원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그 정신 경지는 태산에 올라 뿔나라를 작다고 본 공자의 그것에 견주어진다. 이보다 앞서 홍대용은 “바다를 보지 않거나 바다와 같은 요동벌을 건너보지 않고서는 ‘땅이 둥글다는 설’이 행해질 수가 없다.”<sup>30)</sup>고 했고, 박제가 뒤 1809년 金正禧(1786~1856)는 요동벌을 지나며 “하늘 끝은 어디로 들어갔는가, 땅의 형체 둥글단 것 알겠네.[乾端入何處, 地體信覺圓.]”<sup>31)</sup>라고 한 바 있다. 박지원은 이 요동벌을 천하의 전운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다. 이들 여행자들에게 요동벌은 새로운 지리는 물론 고금 역사와 천체의 모양과 운동을 발견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3-7]의 1, 2구는 청나라의 종교 현상과 정치의 역학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1635년 9월 몽골에서는 원나라 마지막 황제 順帝의 옥새를 바쳤다. 이것을 천명의 상징으로 본 후금에서는 1636년 4월 稱帝建元 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이에 불응하는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켰다. 이때부터 청나라에서는 몽골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몽골 왕실과 통혼하는 등 적극적으로 몽골 포용 정책을 펼쳤다. 實勝寺 등 라마불교 사원이 청 태종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당시 세워졌고, 라마 불교에 대한 우대는 청조 내내 지속되었다. 박제가의 심양의 라마 불교 사원의 외관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역사와 정치 의도까지를 함께 살핀 것이다.

[3-8]은 1790년 3차 연행 때 連山關에서 지은 작품이다. 草河口와 摩天嶺 사이에 위치한 연산관 일대에는 지금도 고구려식 창고인 부경이 상용되는 물론, 돌을 이용한 石室墓와 온돌, 그리고 石城 등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일대가 고대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음은 물론이다. 박제가의 연행 도중 고구려와 발해의 오랜 흔적을 발견했던 것이다. 고대사의 현장

30) 홍대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국역담헌서』 외집 권8, 「沿路記略」.

31) 김정희,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국역완당전서』 권9, 「遼野」.

을 오가는 체험으로 고대사의 발견으로, 고대사의 발견은 조선후기 역사적·민족적 자의식을 강화하는 데 긴요하게 작용했다.

[3-9]는 청나라의 제도 및 풍속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비추어 본 결과이다. 여기서도 벽돌은 벽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함축하는 하나의 상징이 된다. 조선의 지배층이 견마를 잡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니, 일상의 말들이 평소 戰馬로 차출되고 말 타는 풍속이 騎馬戰術과 직결됨을 감안하면, 그건 또 국방상의 치명적인 결함이 된다.<sup>32)</sup>

여기서 예거한 것은 박제가가 깨달은 것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발견과 깨달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질실한 문제의식, 언어의 습득, 치밀한 준비, 예리한 관찰, 부지런한 답사와 탐문, 사람들의 조소와 무관심을 돌파하는 대범함과 용기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행자에게 깨달음은 이르지 않는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모험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既知의 세계를 떠나 未知의 세계를 탐색하여 용기와 지혜를 얻고 돌아와 기존의 삶을 더 나은 단계로 도약시킨다. 비유하면 박제가는 집을 떠나 숲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은 여행자,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다.

#### 3-4. 성취와 귀환, 그리고 좌절

1778년 북경에서 돌아온 박제가는 연행을 떠나는 사람을 전송하며, “조선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서쪽(중국)을 가보지 않으면 遠遊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북경성 남쪽 正陽門 밖 친구들을 떠올렸다.<sup>33)</sup> 또 중국의 풍광

32) 이 밖에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여행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만남을 통해 문화가 교류하고 타자와의 소통과 공감과 비로소 가능해지며, 여행은 유익함을 넘어 감동적인 기억이 된다. 이 부분은 다 다루지 않는다.

33) 박제가, 『초정전서』 권2, 「奉送尹副使[坊]之燕」의 첫 수. “湯湯衣帶劃青丘, 不到天西不遠遊. …… 萬里親朋知憶我, 正陽門外月如鉤.”

이 마치 어제 본 듯 생생하다며 꿈속에 낫은 언제나 玉河館 주위를 맴돈다고 하였다.<sup>34)</sup> 또 서상수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는, 먼 여행을 추억할 제면 입속의 중국어가 떠나지 않는다고도 했다.<sup>35)</sup> 서얼의 비애를 곱씹던 박제가에게 연행 체험은 완강한 이념과 고착된 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었으며,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일이었다. 그는 전심전력으로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관찰 학습하여 조선에 적용할 방안을 강구하였다. 불사약을 얻은 바리데기나 불씨를 구한 바살리사처럼<sup>36)</sup> 박제가는 병든 조선을 치유할 良方을 얻은 것이었다.

박제가는 전장이 있는 김포에 머물면서 『북학의』 저술에 전념했다. 그러던 어느 새벽 7수의 시에 만장의 회포를 풀어냈다. 이 7수의 시는 이제 막 未知의 세계 탐색을 마친 여행자의 성숙되고 고양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는 병든 조선 사회를 치유할 良方을 지녔고 그 효능을 확신했지만, 막상 약을 짓고 투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치유의 희망으로 인한 설렘, 조제와 투약 여부에 대한 불안 등등으로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래는 그중 두 번째 작품이다.

[3-10]

밤은 길고 마음엔 번민이 많아	夜長心轉多
일어나려 하다가 다시 눕누나	欲起還復休
한 몸 의식 연연할 뿐이 아니라	匪直衣食戀
아득한 천지간의 근심 품었네	遙懷天地愁
벌레 하나 이따금 찌르르 울고	一蟲時咄咄
앞새들 문득 놀라 바삭거린다	衆葉驚颼颼
붉은 해는 어제와 다름없건만	朱炎如昨日

34) 위의 시 넷째 수. “…… 祇爲風光如昨日, 夢魂長繞玉河塵.”

35) 박제가, 『초정전서』 권 2, 『觀齋小酌』 : “…… 握手無端思遠道, 口中華語至今存.”

36) 바살리사 이야기는 클라리사 에스테스의 앞의 책 제 3장 「직관의 힘」(93~132쪽) 참조

푸른 살쩍 어느새 가을이 왔네	靑鬢忽已秋
천 마디로 깊은 회포 풀어내느라	千言賦幽懷
내 한 몸 도모할 겨를이 없네 <sup>37)</sup>	未暇一身謀

가을이라 밤은 길어도 이 생각 저 걱정을 옮겨 다니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일어나볼까 하다가도 이내 생각을 접는 것은 심신이 지쳐있기 때문이리라. 그의 고민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천지간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위는 고요하고 캄캄한데 시인의 마음은 너무 맑다. 그래서 미처 잠 들지 못한 벌레 한 마리가 찌르르 우는 소리가 이따금 들리고, 마른 잎들을 스치고 지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온다. 一蟲에서 ‘一’은 박제가의 고독을, ‘衆葉驚’의 ‘驚’은 박제가의 불안을 표상한다. 실은 온 세상에 자기 혼자 깨어있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자기가 깜짝 놀라는 것이다. 햇살은 여름처럼 뜨겁고 몸은 아직 20대 청년이지만, 생각이 무르익고 걱정이 깊어지면서 그의 몸은 점차 가을로 익어갔다. 살쩍에서 느끼는 가을은 여행자의 성숙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얻은 처방은 분명했다. 신라가 국토의 한 구석에 처해있으면서도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수레의 배의 사용이었다. 신라는 수레와 배를 사용하여 교역과 외교를 하고, 그 여력으로 군사를 키울 수 있었다며, 이 두 가지가 아니면 管仲 晏嬰이 다시 온대도 경제를 일으킬 도리가 없다고 했다.<sup>38)</sup> 또 요하가 흐르고 가축들이 천 리에 풍부한 발해의 옛 영토 요동벌을 되찾아서 백성들의 가난을 치유하고 싶다고도 했다.<sup>39)</sup> 어떤 위정자와 지식인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렇듯 원대한 꿈을 꾸어본 적

37) 박제가, 『초정전서』 권2, 「曉坐書懷」.

38) 위의 시 세 번째 수. “新羅處海濱, 八分今之一. 句驪方左侵, 唐師由右出. 倉庾自有餘, 犒饋禮無失, 細究此何故, 其用在舟車. 舟能通外國, 車以便馬驢. 二者不可復, 管晏將何如.”

39) 위의 시 네 번째 수. “遼河出蒙古, 水狹流亦長. 明明殷太師, 經理肇我疆. 公孫與渤海, 出沒皆自此. 平原浩無際, 畜牧連千里. 日月雖荒裔, 風氣猶華人. 庶返汶陽田, 稍慰吾民貧.”

이 있을까? 또 아무리 진귀한 보화가 있어도 유통되지 않으면 개똥만도 못하다며, 상업과 교역을 통해서만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것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했다.<sup>40)</sup> 박제가는 처방은 명쾌했다. 박제가의 진단과 처방은 無位無官의 29세 청년이 제시한 것이라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확하고 풍부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탕에 뜨거운 신념과 백성들에 대한 애정이 짙게 깔려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여행의 효험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달 남짓 여독이 다 풀리기도 전, “壯遊一月餘, 又復起遐心.”라며 박제가는 다시 먼 여행을 꿈꾸었다.<sup>41)</sup> 여행 체험은 낱알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박제가는 이후에도 세 차례 더 여행을 하였다. 1790년 5월에는 2차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왕명을 받고 딸의 혼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3차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박제가는 그것을 오히려 보람으로 여기며 즐겼다. 아래는 그 예증이다.

[3-11]

동국 사람 손꼽아 헤아려 봐도	歷數東國人
나만큼 먼 여행한 사람 없다오	遠遊無我似
어려부터 중화를 사모했는데	髫髻慕中華
이 몸이 직접 보니 기쁘기만 해	身親斯可喜
오악도 오를 수 있을 듯하여	五嶽如可陟
헌신짝 버리듯이 집을 떠났네 <sup>42)</sup>	辭家如脫屣

하지만 북학의』를 지을 때의 신념과 열정은 갈수록 희박해졌다. 그는

40) 위의 시 다섯 번째 수. “掘地得黃金, 萬勺空餓死. 入海採明珠, 百斛換狗矢. 狗矢尚可糞, 明珠其奈何. 陸貨不通燕, 海賈不踰倭. 譬如野中井, 不汲將自渴. 安民不在寶, 生理恐日拙. 太儉民不樂, 太窶民多竊.”

41) 위의 시 여섯 번째 수.

42) 박제가, 초정전서』 권3, 「沙流河述懷』의 일부.

북경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했고 청나라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지만 대부분 개인의 차원에 그치고 만다. 조선에서 박제가는 여전히 천한 서얼이었다. 정조에게 인정받아 규장각 검서관이 되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궁궐의 숙직을 서고, 서책을 교정하고, 문서를 필사하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북학의』에 담긴 그의 신념과 열정, 식견과 개혁 의지 등은 조선에서는 전혀 쓰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1786년 박제는 정조에게 진언하는 가운데 조선 사회의 제 폐단을 열거한 뒤, 하루의 휴가와 10명의 寫者官을 내려주면 폐부 깊숙한 곳을 맡을 다 아뢰겠노라 하며 만강의 기염을 통한다.<sup>43)</sup> 하지만 이를 정점으로 박제가의 개혁 의지는 식어갔다. 정조에 대한 진언은 절망감이 극도에 달하는 가운데 씌어졌던 것이다.

1778년 연행 후 김포에 머물면서 7수의 시를 쓰기 전에 박제가는 이미 아래의 시구를 남겼다.

[3-12]

앉아서 왕패 얘기 맡은 쉽지만

坐談王霸易

당장에 쌀과 소금 마련 어렵네<sup>44)</sup>

立辦米鹽難

『북학의』는 한 시대 王霸 경륜을 담고 있지만, 박제가의 재야의 하찮은 서얼 지식인에 지나지 않았다. 식견이 많고 전망이 크고 신념이 강할수록, 그는 거기에 반비례하여 패배하고 좌절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던 것이다. 아래 시들은 정조에게 진언하던 즈음인 1785,6년에 지어진 것들이다. 한 시대를 이끌어갈 경륜을 품고 있으면서 나이 40이 다 되도록 미관의 자리에서 지엽말단의 일만을 하고 있는, 또 사정이 거기서 좋아질 수 없음을

43) 박제가, 『초정전서』 권7, 「丙午正月二十二日朝參時, 典設署別提朴齊家所懷」.

44) 박제가, 『초정전서』 권2, 「田舍遺悶」.

예감한 박제가의 절망감이 짙게 배어있다.

[3-13]

志士는 쓸쓸하게 늙어감을 슬퍼하고  
楚人은 흔들리며 꽃향기를 탄식하네<sup>45)</sup>

志士淒涼悲老大  
楚人搖落歎芳香

[3-14]

쓸쓸한 인간세상 마흔 생애 글렀으니  
미쳐서 붓과 먹을 가는대로 휘갈기네<sup>46)</sup>

寥落人間四十非  
狂來筆墨自橫飛

[3-15]

올해의 계획 모두 어그러지고  
어느새 시월 하늘만 쓸쓸하네<sup>47)</sup>

濩落今年計  
蒼茫十月陰

[3-16]

호기로 가득 차서 시 짓는 그댈 보며  
높은 재주 시름겨운 내 운명 탄식하네<sup>48)</sup>

看君意氣擘箋豪  
歎息清才僕命騷

현실의 벽은 완강했다. 그건 여행의 감격과 먼 벗들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박제가의 여행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으며 귀환 또한 훌륭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너무 큰 데 반해 현실의 용량은 너무 작았다. 현실은 그의 꿈을 조금도 풀어주지 못했다.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여행자 박제는 절망했다. 그것은 박제가 개인의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역사가 슬픔을 띠는 이유가 된다.

45) 박제가, 『초정전서』 권2, 「和欽堂」.

46) 박제가, 『초정전서』 권2, 「欽堂醉書」.

47) 박제가, 『초정전서』 권2, 「濩落」.

48) 박제가, 『초정전서』 권2, 「過鹿隱·麝泉, 次石湖. 余素不善疾作, 而是夜爲酒所使, 走成十疊」.

#### 4. 맺음말 - 여행의 상징성을 거듭 생각하며

문학사의 아주 오랜 시기부터 여행자들은 출발의 설렘, 여행 도중의 시련과 충격, 귀환 뒤의 깨달음과 좌절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시는 가장 세련되고 애용된 양식이었다. 漢詩 또한 많은 작품들이 여행과 함께 탄생하였으며, 문학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수많은 나그네들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 한시들은 오늘날 우리 앞에 남아서 옛 사람들의 여행을 증명해준다. 이 한시들은 동경에서 절망에 이르는 개인의 복잡 미묘한 심리, 낯선 공간의 산천과 풍물들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작가는 개인의 은밀한 상처를 달래주기도 하고, 한 시대의 사회를 재구할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며, 때로는 심각하게 역사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본고는 18세기 연행 한시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검토한 결과이다.

박제기는 18세기의 燕行者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남긴 『북학의』며 연행 한시들에는 선진 문물과 이국 풍속의 관찰, 조선 사회의 병폐에 대한 통절한 깨달음, 병폐를 치유할 방법의 발견, 그리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열정과 신념으로 가득 차있다. 그는 여행을 통해 온갖 의문을 풀고 앎을 얻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자, 조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비방과 지혜를 얻어 온 영웅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삶에 감동하고 그 인물을 동경하는 것이다. 비방은 시험도 못 해보고 만년에는 유배 끝에 56세라는 이른 나이에 죽었으며 아직도 그가 어디에 묻혀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웅적 면모와 그의 삶이 주는 감동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지금도 우리는 그에게서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 미지의 세계와 과감하게 맞서는 용기, 그리고 자기가 속한 세계를 더 넉넉하고 튼튼하게 하려는 열정과 노력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박제기는 이러한 점들을 보여주는 표상으로 남을 것이

다. 박제가는 ‘모험 정신으로 충만한 여행자’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여행은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다. 그것은 한 개인의 내면이 성숙하고 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祭儀이다. 경이감을 생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술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서고금의 고전을 낳은 지금도 술한 문학작품이 탄생하는 유력한 지점이다. 조선시대 燕行은 가장 빈번하게 또 공식적으로 실천된 해외여행이었는데, 18세기 이후에는 외교사행의 규범적 울타리를 넘어서려는 매우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여행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조선의 관습과 일상을 떠나, 온갖 문화 충격을 체험하고, 조선의 병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행적은 신화나 민담 속 영웅들의 그것과 닮았다. 이들의 여행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여행 체험에서 개별적인 행위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문학 연구자의 중요한 소임이기도 하다.

#### ◆ 참고문헌

- 김창흡, 『三淵集』.  
박제가, 『楚亭全書』.  
송시열, 『宋子大全』.  
유몽인, 『於于集』.  
조위한, 『玄谷集』.  
김정희,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국역완당전서』.  
마르틴 하이데거, 오병남 외 옮김, 『예술작품의 근원에 대하여』, 경문사, 1990.  
블라디미르 야코블리에비치 프루프, 최애리 옮김,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 지성사, 1993.  
빈센트 반 고흐 지음, 신성림 옮김,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예담, 2001.  
사마천, 남만성 옮김, 『사기열전 (하)』, 을유문화사, 1983.  
서머셋 모옴, 장왕록 역, 『달과 6펜스』, 삼성출판사, 1977.

- 유 협, 이민수 역, 『文心雕龍』, 을유문화사, 1984.  
이승수 외,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2005.  
정 민, 『穆陵文壇과 石洲 權輿』, 태학사, 1999.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세계의 영웅 신화』, 대원사, 1991.  
클라리사 P. 에스테스 지음, 손영미 옮김,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고려원, 1994.  
허 균,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국역성소부부고』.  
홍대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국역담헌서』.

투고일 2007. 10. 24 심사시작일 2007. 11. 5 심사완료일 2007. 11. 23

Exploration of a New World, Literature, and Travel

- Based on the "Diplomatic Travel to Beijing",  
Chinese Poetry Made by Jae-ga Park -

Lee, Seung-soo

The significance of travel is met by an internal factor of marvel rather than an external factor of spatial transfer. In a feeling of wonder, your life can be free, you encounter a new world, and you can confirm togetherness with the world. This is where a work of art is created and is the foundation of its existence.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debates on the inseparable correlation between travel and literature have been performed for a long period of time since Ssu-ma Chien. Actually, the fact that the initial trends in the history of Chinese poetry were in close relation to travel can be verif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types of methods travel can create literary works and the deep symbolic meaning of the literary works by reviewing a series of the "Diplomatic Travel to Beijing" made by Jae-ga Park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In terms of reality, his life was a failure. But, in terms of symbol, he was the lead of his life, who solved all of his questions and obtained knowledge through travel, and a hero who obtained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hosun Dynasty and wisdom for resolving them. Owing to these, we are still moved by his life and worship him. Travel is the action of an individual and becomes a huge symbol. Sometimes, it becomes a ritual for resolving the problems of a society rather than a progress for the inner maturity of an individual. From the diplomatic travel to Beijing by some intellects including Jae-ga Park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and their literary works, the deep symbolic significance of travel can be found.

**Keyword** Travel and Art, Travel and Literature, Symbolic Significance of Travel, Diplomatic Travel to Beijing, Jae-ga Park.